덕정종친회 능동묘소와 태사묘 참배

백암온천과 동해안 관광도 겸해

▲ 덕정종친회원들이 우중에도 시조 태사공 묘소에 전배하고 있다.

▲ 속초의 한 식당에서 생선회를 들고 있는 덕정종친회원들

경기 양주시 덕정동 소재 안동권씨덕정종친회德亭宗親會는 전세버스편으로 2008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안동의 능동 시조묘소와 시내 태사묘太師廟를 참배하였다. 추밀공파 정헌공계正獻公系 시조 후 24세 동창위東昌尉 휘 대항大恒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 종친회는 권성옥權聖玉 회장과 권이명權?明 · 권동안權東顔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당초 시조 태사공의 추향일인 음력 10월 중정中丁, 양력 11월 13일에 이 선대유적 순례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마침 임시에 종중의 상사가 있어 일정을 뒤로 미룬 바였다.

당일 오전 8시에 덕정역에 모인 일행은 우중임에도 안동 시조 묘역과 태사묘에 간다는 설레임으로 기왕에 다녀왔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들뜬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동창위 후손들의 세거지인 이곳은 과거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로서 경원선京元線철도의 덕정역이 생기면서 읍내가 형성된 마을이었다. 원래 은골이라 하여 한자로 은곡隱谷 또는 은동隱洞으로 표기하였는데 회천면이 읍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곳도 변화하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작은 시가를 이룬 끝에 지금은 양주시의 덕정동이 되었다.

이 은골 일대 산야가 대개 안동권씨의 세거구기世居舊基였다. 남강공南崗公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 휘 상常의 증손인 동창위의 묘소가 은골에 자리하여 일대가 사패지賜牌地로 내린 때문이었다. 동창위는 광해군 2년, 1610년에 동지중추공同知中樞公 익중益中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는데 선조宣祖의 11녀 정화옹주貞和翁主를 상尙하여 정2품 자의대부資義大夫에 오르고 동창위에 봉해졌으며 실직으로는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을 지냈다. 그리고 현종 7년, 1666년에 57세로 졸하여 이곳 은골에 장사되었고 그 이듬해에 옹주도 64세로 졸하여 합장되었다. 그 묘비문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짓고 전서篆書하였으며 글씨는 송천松泉 조위명趙威明이 썼다.

이와 같은 동창위의 묘역 사산십리四山十里를 후손이 세수하여 300여년 집성촌을 이루어오던 중 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중학교와 도서관의 부지를 할애하여 기증하기도 하고 세월과 함께 토지가 타인 명의로 분배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들어 이곳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중간근교권으로 되어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해가 다르게 변했고 그에 따라 종중 소유의 농지와 대지 및 임야도 수시로 군청과 토지개발공사 등에 수용당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수차에 걸쳐 그렇게 관에 수용된 토지가 2만여평에 이르고 그 보상액은 28억여원이었다.

전회원이 동창위 후손으로 이루어진 덕정종친회에서는 이같은 토지보상금을 문중과 후손을 위해 효과적으로 쓸 방안을 모색하여 1차로 벌인 것이 종중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사업이었다. 양주시 덕정동 산40번지의 종중산에 관의 허가를 얻어 조성한 묘지는 부지 약 1천평 규모로서 95년 4월에 시공하여 98년 10월에 준공하였고 소요경비는 1억원 내외가 들어갔다. 이 일을 당시 회장 권순택權舜澤씨와 총무 권주옥權珠玉씨가 주관하여 이루었다.

다음으로 벌인 것이 덕정리 201 - 1번지에 건립한 덕정종친회관이다. 1,200평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평 500평으로 지은 회관은 다음 회장 권운택權雲澤씨와 총무 권태용權泰容씨가 주관하였는데 97년 10월 6일에 착공하여 98년 6월 30일에 준공하였고 건축비는 13억원이 소요되었다. 세번째로 벌인 일은 덕정리 151 - 6번지 대지 900평의 문중땅에 시장이 없는 덕정리 주민을 위한 덕정종합상가를 지은 공사이다. 전용면적 700평으로 2층에 중심을 공간으로 틔워 비운 회랑식의 이 상가 건물은 직전 권이심權彛心 회장과 권동안權東顔 총무가 주관하여 99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3일에 준공하고 8월 5일에 그 낙성식을 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14억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다.

흔히 종중에 재산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이 된다는 통설이 많은데 덕정종친회는 그런 기척이 보이지 않고 제반사를 화기로운 가운데 해나오고 있다.

이 종친회는 원로기구로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현재 권태준씨가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며 거기에 13인의 자문위원단이 있어 회장단과의 원만한 종사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현 권성옥 회장은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덕정역 증설로 인한 상권의 약화로 건물의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어 운영에 애로가 많으나 종중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후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경로연금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다.

12시 30분이 되어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시조 태사공 묘역에 당도하여 준비해간 전물奠物을 베풀고 성배하였다. 비가 간간이 내리는 날씨임에도 종원들은 시조묘역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감회에 젖고 있었다.

시조 묘소 참배에 이어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태사묘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가 넘은 뒤였다. 태사묘 서재西齋를 지키는 권영목權寧睦 전 대종회 부회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사당을 배알하고 이어 지난 8월부터 배치되었다는 안동시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보물각에 들러 태사공의 유물과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유물 등을 관람하였다. 보물각은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문화유산해설사의 배치와 함께 공개하게 된 바였다.

태사묘 참배를 마치고는 풍산의 하회마을 대신 한지생산공장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점심식사는 안동의 명물인 간고등어로 하였으며 명주 안동소주도 한잔씩 반주를 하였다.

시조묘소와 태사묘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일행은 선대유적 순례에서 관광 여행의 흥겨움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지생산현장을 둘러본 일행은 백암온천을 향해 달리는 전세버스에 몸을 실었다. 궂은 날씨에 어두움이 깔리고 있어 차창밖의 경관은 볼 수 없었으나 족친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울진의 백암온천에 당도한 일행은 이곳 온정리에서 제일 먼저 생긴 온천탕이었다는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였다. 저녁시간에는 온천물이 없어 다음날 온천욕을 즐긴 다음 동해안을 타고 삼척을 지나 강릉을 거쳐 양양의 휴휴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낙산사의 불탄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휴휴암에서의 바닷풍경을 즐겼다. 속초의 ‘ 한산횟집 ’에서 광어와 방어 등의 풍성한 회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귀경길을 재촉하였다.

<사진 · 글 權容根>

오늘날 貴宅은 家庭敎育에 自信이 있습니까? 이 책은 우리 權門의 庭訓을 代行하고자 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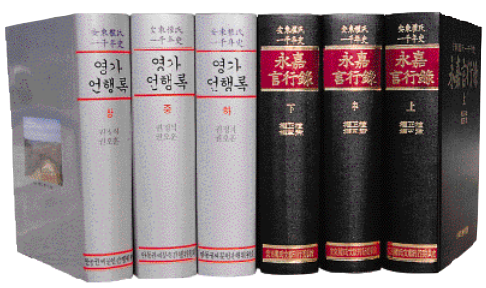
永嘉言行錄

權正植 · 權五焄

叔姪兩代 3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

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

全3卷 20만원



一擧에 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 !
始祖 太師公에서부터 秋淵權 公에
이르기 까지 181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
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
詩文과金石文 · 狀記文 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270여 면, 원색 사진판 424면에
원고지 2만여 장의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 첨단기술을총동원한 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02)723-4480